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

2012년 9월

선교편지 제 47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보 통신관련 조사 전문 기관 (NRI)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필리핀의 현주소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인 광대역 통신망 (Broadband)의 비율이 한국이 80%인 반면에 필리핀은 현재 9.3% 정도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 인터넷 사용자의 70% 이상이 가정이나 직장이 아닌 소위 상업용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디고스 지역은 아직 학교에도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서, 이곳의 학생들은 제가 어릴적 자주 갔던 동네의 협소한 만화 가게와 같은 조그만한 인터넷 카페에 옹기종기 모여서 바깥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익핏 고등학교에 컴퓨터와 백과사전 기증

그런데 같은 조사 자료에 의하면, 흥미롭게도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자 메시지 (SMS)'를 주고 받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약 7,000만명의 이용자가 하루에 10억개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아직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을 통한 Email이나 전화 음성 통화 보다는 저렴한 단말기 (핸드폰)를 통하여 수없이 문자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있는 저희로서는 얼마나 실감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핸드폰이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긴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음성 통화보다는 대부분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페소 (\$2.50), 300페소, 500페소등의 통신 카드를 필요에 따라 전화기에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통화로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문자 메시지용으로는 제법 오랜동안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 소통이 많이 불편 했지만, 지금은 (운전중에도 문자 메시지를 확인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익숙해져서 도리어 편리하게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는 필요한 용건을 전하는 기본적인 용도 외에도 참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아직 우체국 집배원이 편지를 배달할 수 있을 만큼 주소 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연락이 등록된 전화 번호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각종 광고용 문자 메시지들도 성가시게 배달이 되기도 하지만, 성탄절이나 신년 초에는 현지 지인으로부터 카드 대신 핸드폰을 통하여 반가운 성탄 축하 메시지들을 받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급하게 중보 기도 요청을 받고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기도하고,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참으로 많은 다양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모든 용건을 마친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음성 통화도 아니고, E-mail도 아니고, 너무 형식적 이지도 않고, 또한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도 좋은 '마지막 인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Good Bye', 'Bye', 'Talk later', 'See you later', 'Blessings', 'Serving together', '^_^'.... 상황에 따라 모두 좋은 인사가 될 수 있겠지만, 선교사로서 이곳에 와 있는 저로서는 이 문자 메시지 또한 현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지 아니든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에 상관없이 마지막 인사는 이 땅 끝이 주님 앞으로 돌아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God bless you!'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마띠 고등학교 컴퓨터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 67:7)

그런데 제가 이곳에 정착을 시작하면서부터 주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아귀레' 목사님은 제가 따라 가기 어려울 정도로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매우 강력하게 감사와 축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는 이곳에서 혼자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아귀레 목사님은 아침 5시 15분 경에 저에게 어김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옵니다.

"박 선교사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민다나오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지만, 축복의 짧은 문자 메시지는 새벽부터 선교사를 춤추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 118:26)



항상 무더운 이곳이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더운 여름 방학을 마치고 모든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저희가 학원 사역을 하는 마띠 고등학교에도 이제 막 어린 아이 티를 벗어난 새로운 얼굴의 고등학교 1학년 (미국의 7학년) 학생들이 자신들의 몸보다 훨씬 커 보이는 교복을 입고 급한 일이 있는 듯이 바쁘게 걸어 다닙니다. 마치 저희들을 오래 저부터 잘 아는듯이 용감하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신입생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새 학기 시작과 더불어 약 430여명의 학생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새롭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립 고등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께서 매달 한번씩 전교생을 대상으로 마띠 교회 목사님의 인도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학기 부터는 마띠 교회의 찬양팀도 예배에 합류하여 모든 학생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찬양 예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예배 위원뿐만 아니라 악기와 음향 장비도 보강을 해서 예배에 집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한 번 드러지는 예배만으로는 학생들을 훈련하고 양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는 자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20명의 학생들을 선별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동기 부여를 위해서 한글도 가르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식사도 같이 해 먹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해 왔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학생들 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부르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익으로 인하여 새로운 토요일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로 시작 전부터 많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엡 3:7)**

참여한 학생들의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서, 학교측에서도 많은 관심 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토요일 프로그램을 위해서 새로운 학생을 모집하는 일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토요 프로그램 지원 마감일에 맞추어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에 참여했던 20명 전원은 물론이고, 새로운 140명의 학생이 추가되어 모두 '160명'이 토요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토요 프로그램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양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60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저희 능력 밖의 인원입니다. 매우 아쉽지만 기드온이 32,000명 중에서 300 용사를 고르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하여 기존의 20명을 포함하여 최종 60명으로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60명도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겨운 인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학기에 20명의 학생을 양육하고 섬기는데도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힘에 부칠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품고 새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암송이 주는 7가지 유익을 나누며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토요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 모두 매주 두 구절의 성경을 같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억 속에 선교사인 저희의 말이 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라며, 네비게이트 60 구절 성경 암송 중에서 주제별로 1개씩을 선정하여 모두 30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누적해서 2, 4, 6,...의 구절을 짝을 지어 점검하며, 암송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학생들 앞에서 완벽하게 암송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주 푸짐하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구절을 모두 완벽하게 암송하는 학생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가 성경 암송의 불이 붙었습니다. 더불어서 교장 선생님과 지도 교사도 같이 성경 암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성경 암송 점검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곧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 105:19)

60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하기에도 힘겨운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정과 형편을 보듬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기도해 주며,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저희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어린 학생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시 104:34)

기도 요청

-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 디고스 학원 선교 센터 설립을 위하여
- 마띠 고등학교 토요 프로그램을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